

비단섬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전형하신 정안복도 신도군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날이 갈수록 온 나라 인민을 크나큰 격동과 환희로 몰아내고자 하고 있다.

궂은 날씨도 아파못하지 않으시고 과도사나운 배길을 달려 서해한강과 한강의 신도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월이 흐르고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빛도 업적을 더욱 넓어가게 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가 그 불멸의 자우우에 뜨겁게 수놓아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원상과 숭고한 뜻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부에 새로 생겨난 신도군을 갈생산의 표준, 본보기로 끌고 가려 수령님과 장군님의 빛도업적을 세세년년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신도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비단섬부터 생각한다.

비단섬, 그 이름만 봐보아도 어찌정을 라시고 과도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며 비단섬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명한 영성이 어려온다.

신도군은 수수천년 암울로 셧기며 버립방울에서 현지지도의 불길을 위하여 화학설유공장의 레전을 풍화한 구상을 일으키고 수원정보의 갑발을 조성하는 대자로 조전들을 험하게 이끌어 주시었으며 천히

의 이름까지 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비범한 빛도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부에 생겨난 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7(1958)년 6월 바람세한 바길로 신도앞바다에까지 오시어 이곳 섬들

을 돌아보시면서 이 일대를 화학섬으로 풍화하는 지역으로 꾸밀때 대여는데 철학을 실어주시였다.

주체 55(1966)년 8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또다시 섬을 찾으신 때분에 웨반한 배들이 도항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때였다.

하지만 어버이 수령님께서 와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비바람이 사납다고 갑작스러운 그만둔적이 있는가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풍물업장을 위해 온갖 고교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수령님들에게서 만이 걸으실 수 있는 비단섬에 대한 사랑의 길.

이날 말동이 죽죽 떠지는 진창길

을 걸어오니에 으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물없이 절차진

길을 간을 깊은 힘으로 끌어올리실

때마다 그의 힘으로 끌어오르는 우신도

마치 신도를 위한 천정할구가 없었다.

비단섬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대로 신도군을

주체적인 화학설유원기지로 더욱

진화하여 꾸려진 철석의 의지를 자축

자축되시며.

듯긴은 현지지도의 그날 물결사나

내길과 함께 갑작스러운 해치시며

신도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50여년전 역수

로 내려온 비를 맞으시며 신도에

오르시면서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금 빛은 것만

같이 활을 오르는 걱정을 누르지 못

그들의 이미 한 심정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지지도 하신 전진을

돌이보시면서 여기에 오니 50여년

간에 그곳에 거북한 밭자취를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이 떠오르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큰에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자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7(1958)년 6월 바람세한 바길로

신도앞바다에까지 오시어 이곳 섬들

는 속에 간절장에서는 날에 남았다

롯해 하시는 50여년전의 그날은 머칠째 지속되며 내리는 장마비가 여느때 없이 기승을 부리며 쓰이지 않고 신기술을 사납게 휘감은 세찬 것도 때분에 웨반한 배들도 항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 인민에 대한 원하는 사랑과 고마한 데 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험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게서 만이 걸으실 수 있는

비단섬에 대한 사랑의 길.

그로부터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 날 세대도 바뀌고 섬풍경도 물

라보기 알라졌지만 나라의 화학설유

공업발전을 위한 온갖 고교와 심혈

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신의 자혹은 비단섬, 그 이름과 함께는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양소중하게 되어져 있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풀피우시기 위해 그리고 마음으로 끌어온 수령님들의 협력으로 풀피우신 위대한

장군님들이 헌신으로 풀피우신

임금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에서는 신도

군을 찾으신 것이다.

듯긴은 현지지도의 그날 물결사나

내길과 함께 갑작스러운 해치시며

신도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50여년전 역수

로 내려온 비를 맞으시며 신도에

오르시면서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금 빛은 것만

같이 활을 오르는 걱정을 누르지 못

그들의 이미 한 심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숲과 풀을 풀피우신

위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부에 새롭게 나온 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업적

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군님과 함께 갑작스러운 해치시며

신도군을 찾으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

들고 그 후 갑작스러운 철석의 갑작스

한국에서 철석현자들이 헌신으로

한국을 살피고 그들의 힘으로

한국을 살피고 그들의 힘으로</p

당조직들은 경제건설대진군에서 3대혁명소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하자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최근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 마전원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운동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그 비결은 헌법기념 당조직원들이 3대혁명소조원들 속에서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당적지도를 끓는 방법론을 가지고 짜고든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현 헌법기념 당조직원회의 3대 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3대 혁명소조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헌·창조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당위원회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의 고언직지로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흥분된 심정으로 말아안았을 때였다.

일군들은 세로운 판장을 가지고 헌법기념 3대 혁명소조의 사업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았다.

높은 사상적의를 암고 지혜와 열정을 비벼며 소조원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이바지하고자 3대 혁명소조원들이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시키고 있었다.

조견이 어렵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3대 혁명선원으로 내세워준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높은 사상적 각오를 안고 일하고 있었다.

소조원들은 우리 당정책으로 헌·창조될 때 그들의 창조적일의 매우 비상히 높아줄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한 당위원회 회장은 3대 혁명소조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헌·창조준비시키는 것을 허락하였다.

당위원회 회장에서는 우선 3대 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로 서초운 전환을 일으킬 때 대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당적지도의 모작에 대한 학습열풍부터 시작해 일으kn었다.

문화학습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3대 혁명소조원들은 당정책을 허락해 준 것을 허락하였다.

자기들에게 독립인물을 마련해마다 다른 단위에 속속되어 참가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몇몇 부서는 독자적인 힘으로 출전하고 있다.

현 헌법기념 당조직원회의 사업에서는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전기를 끌어내리며 헌·창조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밟기해나왔다.

현 헌법기념 당조직원회의 사업에서는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그들이 결심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승리가 있다

단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위 대 한 명 도 자
길 정 일 통 지 께 서는 다음 파
같이 표시하시였다.

《진실한 생활속에 문화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전설도
우리가 다 맡기는 신념의 구호
높이 물결진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가는 군인들로
하여 그 이들로 자랑스러운 대
자연개조전투장!

평양하늘을 우러러 삼가 왕공
의 보고드림 그날을 향하여 서
수놓아지는 지하작장에서 천연
암반을 깨고나가는 완강한 공격
정신도 전설자들의 무정기세를
활용에 알아볼수 있게 하는 저
관판들도 훌륭하다.

단천전역에서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움켜지는 군인들의 자
우들의 무정의 노래는 또 얼마나
가슴을 훈드는가.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이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
주는 그들의 떠는 생활이 고루
생이다. 어디서나 노래소리가
울린다. 새수놓아지는 암반에서
도, 통발나무생산현장에서, 자
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후방기지들에서도 혁명의 노
래, 무정의 노래가 높이 울린
다. 어찌 그뿐인가. 전설장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통지 께 서는 다음 파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달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굽게 결합되고 온 사
회가 서로 끌고 이끄는 군
한 대가정이 되어 생활운명
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
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운흥군에 가면 단천발전소건
설자들의 가슴속에 정깊이 자리
잡은 깊은 전통이 있다. 운
흥려원이다.

운흥려원
의 종업원들은
운흥땅의 푸
고 오는 돌격
대원들을 위해
거울에는 더운을
울여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여행 국도 대회를 하며 친구와 식
사도 상의껏 보장해주고 있다.

엄마와 단천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수십명의 돌격대원들이 밤
늦게 험준한 내륙에 떠났다.

뜻밖의 사정으로 자기들을 배
우고자 자동차가 빠져나온 뒤
운반을 하며 돌격대원들은 하루
밤에 차운 차운 운행하면서 차
부부를 지낼 작정으로 대원들을
이끌었다. 이제 나이지숙한 엄마
이 불쌍 그들의 일을 막아섰다.

《단천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돌격대원들이 아닙니까?》

낮모를 네이의 출현에 어안이
벙벙해진 돌격대원들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순간 너인의 얼굴에 밝은 미소
가 퍼졌다. 그들이 일을 막아섰다.

《마침이군요. 저와 함께 어
서 갑시다.》

너인의 속마음을 알길 없는
돌격대원들은 인증 손들을 내저
었다.

후려운 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세월이 가도 가실수 없는 원한

자료중에서

운산군계급교양관
에는 운산군 청화리에
서 살던 김영실로인의
후대들에게 자주 물려
주곤 하던 피눈물나는
해방전이야기가 수록된 자료가
있다.

입제는 운산군의 한 광산에서
만도 많은 금을 약탈해갔는데
김영실로인의 아버지는 그 광산
에서 고력을 치르던 광부였다.

위 대 한 명 도 자
길 정 일 통 지 께 서는 다음 파
같이 표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해
아파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물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실로인의 일
지 체험한 이야기이다.

김영실로인은 자기가 어릴적
에 체험하였던 희생을나는 이야기
를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입제
야당로 환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활천현원우이 반드시 천재
배의 퍼감을 받아내야 한다고
당부하곤 하였다.

해방을 한때 앞둔 1944년
가을 어느 날,

광산의 일본인 광주농에게는
비밀 공사장들과 군수공장들에
대 많은 금을 보낸에 대한 독촉
장이 떨어졌다.

광주농은 그날로 죽을 위험에
내몰려 어처지기로 몰려온
광고로는 광고로는 대로 올려준다
는 소문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새로운 승리를 행취하자》에 이어
울려퍼진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에서는 내 조국의 영원
한 푸른 하늘을 펼쳐 주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명령을 둑이 달글이 단천발전소
건설에서 승전고를 울려갈 군인
들의 굳센 의지가 박차고고 있다.

작풍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들의 전두장은 사람들의 눈길이
밀 미치는 그런 곳들이었다. 자
세와 실비수송을 위한 도로건설
장, 통발나무생산현장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밀집의 승전기》의 기억과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
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물길을 헤매는 그날을 그려보
며 통발나무생산현장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지난해 5월 철원군 포부를
안고 수백마리를 끌고 달리는
단천발전소 건설장에 도착한 그들은
속소를 헤매는 그날을 그려보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결원에 출전
연무에도 우리를 이끌며 조선
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김길수
속구분대의 지원원 유현광봉동
장과 함께 푸른 풍랑에서 위훈
떨친 군인들의 두정이야기는
비록 도로를 따라

길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대형화물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
물을 적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장회를 실시해 즉각
제주도에는 난관을 웃으며
행복지가고있습니다.》

절세 위인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빛나는 혁명력사의 갈비미니에는 국적파과 부색이 다른 외국인들과 동지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준 천선 같은 이야기들이 수많아 아로새겨졌다.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보살핌에 의하여 저쳐가던 생명을 되찾고 자주를 위한 정의의길에 생활 및 내인 사람들은 환한이 아니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고결한 인품과 막강한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온 생의 꽃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기네전공포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에밀리 봄바비었다.

1964년 8월초 어느날 에밀리 봄바비는 기네전공포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에 서 헤치어 들어왔다. 헤치어에 미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서 감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해열제를 먹고 풀 나와지는 것 같아 그는 굉장히 도착한 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환경 열화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수고려는 줄 알았던 병이 또다시 머리를 치웠다. 연회가 끝난 후 겨우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아픔을 호소하였다. 의사들이 털려와 진찰을 하였다. 결과는 매우 심각하였다.

생명이 경각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았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능한 의사들을 충동 원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살피며 나와 함께 헤치어에 치료를 주어주었다.

우리 나라의 관호하는 의학박사들의 치료에 봄바비를 구원하기 위한 의사의 회가 전령되고 현이 치료

창시간의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드디어 봄바비가 정신을 차렸다.

우리 의사들은 물론 그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백을 고쳤지만 대로 단정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봄바비가 정신을 차리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대로 단정을 올리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절세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외국인의 병에 대하여 그처럼 마음을 쓰며 치료해주시면서 빌리 회복시키라는 파업을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외국인의 병에 대하여 그처럼 마음을 쓰며 치료해주시면서 빌리 회복시키라는 파업을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위인으로 세계의 칭송을 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를 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봄바비는 놀라지 않을